







연두는 ○○동 ○○아파트 2층에 사는 친구랍니다.  
지금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.

“쿵쿵 쿵쿵, 탁탁. 이게 무슨 소리지?”

위층에 새로 이사 온 친구들이 쿵쿵 뛰고 있어요.  
연두와 연두 가족들은 귀를 막았어요.

“엄마, 저희가 뛰어도 아래층에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?”

“응~ 그래, 연두와 파랑이가 조금만 뛰어도 아래층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로 들린단다.  
앞으로 아래층 가족들을 위해 연두와 파랑이는 사뿐사뿐 걸어줄 수 있니?”

“네~저희는 앞으로 집 안에서 뛰지 않고 쉿!~사뿐사뿐 걸을게요.”

